

【 해외금융 뉴스: 세계 】

세계은행, 한국 등 신흥국의 역할 증대 전망

- 세계은행은 한국 등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세계은행은 ‘2011 글로벌 성장 전망’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세계경제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-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신흥국 경제는 연평균 4.7% 성장하는 반면, 선진국 경제는 신흥국의 절반 수준인 2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.
 - 특히 글로벌 경제성장은 일부 국가가 글로벌 경제무대를 지배하는 대신, 다극화된 체제를 통해 이뤄지겠으며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한국, 러시아 등 6개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 세계은행은 신흥국의 성장이 국제통화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달러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함.
 - 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통화체제가 단일통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 - 2025년에 가장 유력한 국제통화체제 시나리오는 달러화, 유로화,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복수통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임.
 - 현재 유로화는 달러화의 강력한 도전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로지역의 채무위기가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것이 전제 조건임.
-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체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.
 -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로 결제되는 중국의 무역규모(수입+수출)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힘.
 - 위안화로 결제되는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9년 4/4분기 0.1% 내외에서 2010년 4/4분기에 5.1%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. (World Bank 등, 5/17)